

옛 종이의 아름다움과 투철한 기록정신

고서·고문서 전시방 '상암산방' 이겸노 대표

인사동 통문관 2층에 자리잡은 고서·고문서 전시방인 '상암산방'에 들어서면 이겸노옹(90)이 단아한 자세로 앉아 있다.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의 동안이다. 그를 둘러싸고 몇백년의 시간을 훌쩍 건너 뛴 고문서들이 열병식의 병정처럼 서 있다. 지난달 15일 연구원 이국강씨의 도움으로 문을 연 이래 '옛 우리 종이 생활전'이 열리고 있다.

"현재 통문관은 손자가 맡고 있습니다. 통문관에서는 책만 주로 매매했는데, 고문건에 대해 관심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서찰·임명장·판결문 등이 제법 쌓였습니다. 선조들의 지혜와 생활상이 담겨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공개했습니다."

15평 남짓한 공간에 300여점의 고문건이 전시돼 있다. 1200년경부터 1950년대까지의 책에서 나온 종이들, 고증된 서류들이다. 세종4년(1422) 제지청에서 제작한 종이, 출가한 딸이 친정 아버지의 제삿날에 적은 제문,



'가장 약한 자들'을 위한 노래

어린이 동요집 음반 만든 백창우씨

가수 백창우씨가 동요집 <새로 다듬고 엮은 전래동요>와 <이원수 시에 붙인 노래들>을 출판사 보림에서 냈다. 이른바 '운동권 가요'로 80년대를 풍미했던 '노래마을'을 이끌었기에 뜻밖이다. 하지만 언제나 결핍된 삶을 어루만지는 노래를 만들던 그였기에 금세 고개가 끄덕여진다. 어린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들이 아닌가.

"한 1년쯤 바쁜 시절을 돌아볼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제일 기쁘고 환했을 때가 언제였나 생각하게 됐죠."

아이들과 텅굴 때, 동요를 만들고 노래할 때였다. 10년째 해 온 어린이 문화모임에서 아이들과 노래를 부르고, 그것을 여러 행사에 발표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반가워했다. 어린이 노래나 문화에 많이 목말랐던 것



책 안에서 1인 종합예술을 꿈꾸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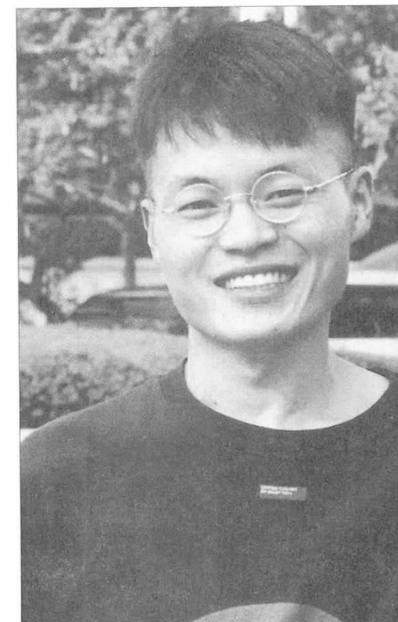
인터넷사이트 '책 실험실' 운영하는 원범식씨

책은 직사각형이고 하얀색 종이에 까만 글자가 들어 있다. 책장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겨야 하고 글자는 수직 아니면 수평으로 인쇄돼야 한다. 우리가 아는 책은 바로 이런 모습이다.

개인 인터넷사이트 '책 실험실(soback.kornet21.net/~typobook)'을 운영하는 원범식씨(28)는 책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물론 책읽기를 즐기지만, 국민대 금속공예과를 나온 그에게 책은 다양한 재료 중 하나다. 사이트 이름을 '책 실험실'로 붙인 까닭은 '책'과 '실험'이라는, 서로 만나기 힘든 두 단어를 부딪히게 해 새로운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다.

"저는 전혀 다른 책을 생각합니다. 그 책 속에는 음악도, 그림도, 글자체도 모두 예술의 형식으로 담길 것 입니다. 제가 꿈꾸는 모든 예술의 형태가 모두 구현된 종합체로서의 책. 그런 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의 사이트에는 뭐라 잘라 말하기 힘든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그는 그것을 책이라 말했다



“우리 조상들은 책 쌓는 것이 금 쌓는 것보다 낫다는 정신을 지녔습니다. 지금은 책과 기록에 대한 애정이 예전만 못해 안타까워요.”

노비들의 식비 계산서인 연기(煙記), 황성신문 구독료 영수증 등 진기한 문건으로 빼곡하다.

국내 고서·고문서의 산증인답게 일화도 많다. 어느 집에서 버리는 종이더미를 몽땅이로 사서 보니 퇴계 선생의 문집발간 일지가 들어 있었다. 이것이 알려져 서울대 규장각에 자료로 수록됐고 도산서원에서 필사해가기도 했다. 1968년경에는 서강대 이기백·이광린 교수 등이 찾아와 도서관 특별예산으로 고서를 구입해가기도 했다.

“우리 조상들은 적서승금(積書勝金; 책을 쌓는 것이 금을 쌓는 것보다 낫다)의 정신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책과 기록에 대한 애정이 예전만 못해서 안타까워요.”

소장 자료를 정리해 매년 2~3회 정도 전시할 생각이다. 오는 15일부터는 ‘교지’ 전시회를 연다. 자신이 소장한 한글본 《농가월령가》와 김천택의 《청구영언》의 영인본 발간도 추진중이다. 국립도서관과 박물관 등 공공기관에서 인수의사가 있으면 넘길 예정이다.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할 문화유산이기 때문이다.

- 박천홍 기자

“아이들은 밝은 노래만 좋아하지 않아요. 합창이 아니라 혼자 부르는 노래는 오히려 슬픈 노래를 부르는 편입니다.”

이다.

“아이들은 밝은 노래만 좋아하지 않아요. 합창이 아니라 혼자 부르는 노래는 오히려 슬픈 노래를 부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언니 태우고 간 기차/말 하나 없이/달이 열번 등그러도 안 데려오니...(<기차> 중에서)”, “...전봇대/전봇대/아무리 기다려도/아니 오시는/올 아버지 소식 좀/전해 주려마...(<전봇대> 중에서)같은, 슬픈 정서를 그릴 줄 아는 이원수 동시로 첫 음반을 꾸몄다. “시 속의 노래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됐으므로 작업은 참 즐거웠다.

“출판은 어린이 문화를 흐르게 하는 거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음반사가 아닌 출판사에서 음반을 낸 이유다. 좋은 책을 나누려는 학부모모임이나 전문서점이 활성화 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이다. 다들 지 않은 아이들 목소리에 물소리, 새소리, 다들이 소리까지 어우러진 노래를 들으면 어른도 즐거워진다. 그렇지, 정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하게 된다.

- 이현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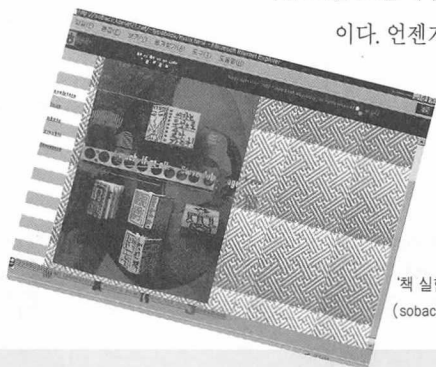
“저는 전혀 다른 책을 생각합니다. 제가 꿈꾸는 모든 예술형태가 구현된 종합체로서의 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만 금속공예처럼, 아트디자인처럼, 만화처럼 보인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아는 책의 모습을 발견할 수는 없다.

“지금은 한글 폰트를 만드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5개 정도의 폰트를 만들었죠. 실용적인 폰트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글을 컴퓨터에 구현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 그는 그런 작업에 몰두하기 위해 ‘봄 스페이스’라는 회사를 차렸다. 물론 그가 대표고 유일한 직원이다. 언젠가는 다시 전통적인 금속공예로 돌아갈지 모르지만, 아직은 ‘1인 종합예술’ 작업을 계속할 작정이다. 그에게 책은 손톱 크기만한 장식품이고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이트고 1칸짜리 만화이기도 하다.

- 김연수 기자



‘책 실험실’ 사이트의 초기화면
(soback.kornet21.net/~typobook)